



# 완두콩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60호

2025년 12월호

지금 여기, 고산로 100

지난 11월 완두콩이 고산로 100 2층에 등지를 틀면서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다. 세월의 깊이가 다른 열 업종이 교차하는 이곳에 손때 묻은 역사와 청년의 활기가 공존하고 있다. 한 지붕 아래 웅기종기 모여 사는 고산로 100 사람들의 초겨울 하루를 따라가 본다. 관련 기사 2-7면

- 수리수리 집수리부캐학교 ..... 8P
- 완사넷x소품사 성과공유회 현장 ..... 9P
- 꿈의극단x꿈의무용단 빛나는 정기공연 ... 10P
- 삶의풍경 봉동 둔산리 왕안라 이야기 ... 12P
- 자립실협축제 조직 발족식 ..... 16P



그림 윤대라



한 지붕 열 가족

## 용기종기, 고산로 100 사람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시간, 고산로 100 건물에는 열 개의 다른 삶이 깨어난다. 이른 새벽, 세탁소 수선대에 불이 켜지고 방앗간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2층으로 이사한 완두콩을 비롯해 유별난 딸기농장, 방앗간, 지업사, 미용실, 김밥집, 건강원, 청년공간까지 세대도, 업력도, 향도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정답게 살아가고 있다.

### » 아침을 여는 고소함과 따뜻한 수증기

새벽 6시가 되면 참맛나기름집 문이 가장 먼저 열린다. 박정순(70) 어르신은 오늘도 깨를 저운에서 볶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고소한 냄새는 새벽 골목을 가득 채운다. 정순 어르신에게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다. “손님들 얼굴 보면 반갑고, 그냥 와서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게 재밌어. 여기는 단골들 사랑방 같은 곳이지.”

기름집 옆, 커다란 통창이 눈에 띄는 동일세탁소에는 이영권 사장이 다림질 삼매경에 빠져 있다. 바깥 배관을 통해 뜨끈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잠시 후, 고산에 사는 20대 청년이 수선을 맡기러 이곳을 찾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곳만 이용했다는 청년이 “최대한 빨리 수선해 달라”고 부탁하자, 사장님이 “문제없어, 금방 처리해줄게.”라며 웃었다. 오랜 단골의 티가 난다.



고산면내 중앙 2층짜리 건물  
김밥 말고 회 썰고 머리를 마는  
친근한 가게 10곳 빼곡

눈만 마주쳐도 속내를 아는 이웃들  
같은 자리서 50년째 영업 중인 곳도

» 점심때의 소란함과 물건 정리하는 차분한 손길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가운데 김밥 천국에도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님들은 김밥을 포장해가거나 음식을 주문한 뒤, 주인장과 도란도란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기다리는 풍경이 익숙하다.

그 옆으로는 점심 예약을 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훗집 주인 김정곤 사장이 수조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활기 넘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고산로 100의 한낮을 채운다.

이러한 소란함과 대조적으로 고산지업사에서는 백응용(85) 사장이 차분하게 장사를 시작했다. 장관과 벽지, 마루와 봉투를 정리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그는 “제일 잘 나가는 건 봉투야. 찾기 쉽게 항상 정리를 해야 하루 일과가 시작되지.”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기억과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을 떠올리며 백 사장님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진다.

» 활력 속에 웃음꽃 피는 오후

기온이 한층 따뜻해진 오후 시간, 꽃미용실은 오전부터 첫차를 타고 방문한 단골을 맞이하고 이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저마다 다른 무늬의 파마 모자를 쓰고 앉아 수다를 나누는 손님들의 얼굴이 화기에 애해다.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정보와 정을 나누는 또 하나의 사랑방이다.

그 옆 봉어나라의 주인장 역시 새로 잡은 민물고기를 손질하거나, 신선한 물고기를 사러 온 손님을 맞으며 바쁜 오후를 보내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유별난을 운영하는 박성호 씨 등 세 명의 청년농부 사장들은 이전 가게인 순의상설 간판을 그대로 둔채 영업 중이다. 지금 농장에서 한참 통통해지는 딸기를 수확해 곧 매대에 올릴 예정이다. 생딸기 뿐만 아니라 냉동딸기와 가공품도 취급한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속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한 건물 안에서 느껴지는 정겨움과 활력은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고산로 100 안에서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오랜 시간 쌓인 관계와 소소한 일상이 하루를 만들어 간다. 기름 냄새와 쉼쉼~ 뜨거운 수증기, 소란한 식사 소리와 백발의 어르신이 정리하는 봉투, 그리고 파마 모자 아래의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12월, 고산로 100의 풍경이다.



도로 맞은편에서 바라본 고산로 100 건물

고산로 100 건물은



이들 열 가게를 품은 고산로 100 건물은 1975년에 1층이 지어지고 몇 년 후 2층으로 증축됐다. 합쳐서 대략 660㎡(200평) 가량 된다. 고산면 소재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구시가지 중심 도로변에 비교적 규모 있게 서 있다. 건물주 고병희 씨는 “한 번 입주하면 오래 계시는 게 우리 가게 사장님들의 특징”이라며 “이분들이 대박 나 돈 많이 버는 게 내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산로  
100

고산지업사 백응용, 서금자 사장 부부

## 단골손님들,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산지업사 백응용(85) 사장님은 내년 1월 점포 정리를 앞두고 있다. 1970년부터 50여 년째 운영해 온 지업사는 장판, 벽지, 마루, 봉투, 마대, 테이프 등 생활자재와 농자재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온 공간이다. 백 사장은 “단골도 지금도 많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웃음). 나 나이가 있으니까 몸도 안 좋아져서 치료 좀 하면서 쉬려고 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누가 한다고 하면 물건은 주겠는데 마음 한 칸이 허전하네”라고 덧붙혔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연령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60대 아줌마는 마대 한 자루를 사러 매일같이 들르고 20대 김현아 씨는 파란 봉투 한 묶음을 사기 위해 찾아온다.

백 사장은 “손님들 오면 얼굴만 봐도 좋고 물건 골라주는 거 재밌어. 만 오천 원짜리 사러 와서 만 원만 쥐도 괜찮아. 그래도 단골이 돌아와 주니까 힘 나지”라고 말했다.

제품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있다. 봉투는 크기별로 정리해 손님들이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장판과 벽지, 마루 등은 마을 집집마다 필요한 만큼 공급했다.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지업사를 운영하며 자식들도 모두 키웠다. 딸 둘, 아들 둘, 손자들까지 성장했고 자식들은 공부도 잘 마쳤다.

백 사장님은 “이제 점포를 정리하지만 손님들과 함께한 시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아쉬움은 크지만 3년만 더 하고 싶었는데”라고 백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이 골목에도 지업사가 많았는데 장사는 항상 잘됐어. 지금도 손님 발길 끊이지 않는데 점포 정리한다니까 아쉬워하는 사람 많네. 그거 보면 참 마음 아프지”라며 백 사장은 미소 지었다.

고산지업사에서 나오는 물건 하나 하나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50년 가까이 마을과 함께해 온 시간 손님들의 이야기, 부부의 정성이 담긴 흔적이다. 오늘도 골목 어귀에는 아쉬움과 따뜻함이 함께 남아 이 작은 가게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할 것을 느낄 수 있다.



건강을 돌보려 50여 년 장사를 접는 백응용, 서금자 사장 부부

고산로  
100

김밥천국 하효권, 노원순 사장 부부



고산사람들의 든든한 밥집이 된 김밥천국의 하효권, 노원순 사장 부부

## 5년만 하자 했는데 어느새 14년째

“딱 5년만 하자”던 다짐이 어느새 14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전주에서 온 하효권, 노원순(55) 사장 부부는 남편의 후배 가게를 인수하며 고산과의 인연을 맺었다. 퇴직 후 오래 쉴 줄 알았지만,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던 남편의 적극적 권유로 김밥천국을 운영하게 됐다. 그렇게 문을 연 김밥천국은 이제 고산 사람들의 든든한 일상이 되었다.

고산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특히 인수인계를 받던 때가 마침 양과 수확으로 바쁜 6월이었다. 새참으로 김밥을 주던 때라 농가마다 김밥을 30~40줄씩 주문하는데, 그렇게 주문하는 집이 열 군데가 넘었다. 노원순 사장은 “레시피 외우고 만드느라 바쁜데, 김밥 주문까지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회상하며 “문을 잠가 놓고 싶을 정도였다”고 웃었다. 그렇지만 무던하고 정 많은 주민들이 기다려준 덕분에 사장 부부는 초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다.

주방 일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남편은 바쁜 아내를 돕기 위해 김밥을 짜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내보다 더 잘 싸게 되었다. 김밥, 배달, 카운터를 오가며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부부의 노력으로 가게는 점차 자리 잡았다. 가게의 제일 인기 메뉴는 무엇인지 묻자 노원순 사장은 비빔밥과 오므라이스를 자신 있게 내놓았다. “쌀, 고추, 양파, 파 등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들깨도 방앗간 가서 기름 짜서 쓰니까 더 맛있죠. 주말에는 진안 농장에 가서 직접 농사도 짓고 있어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찾는 손님마다 안부를 묻는다. 고산에서 14년, 이웃들의 든든한 밥집이자 따뜻한 쉼터로 자리 잡은 부부의 김밥천국은 앞으로도 고산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고산로  
100

꽃 미용실 소연자 사장



큰 욕심 없이 손님과 옷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꽃 미용실 소연자 사장

고산로  
100

동일세탁소 이영권 사장

## 양복점 하다 세탁소로 50년째

고산면 중심가에는 반세기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 있다. 바로 동일세탁소다. 이영권 사장은 고산 토박이로, 초등학교 졸업 후 윗동네 삼거리에서 재단과 세탁 등 기술을 어깨너머로 일하며 배웠다. 이후 지금의 자리에 양복점을 열었고, 세월이 흐르며 주력 업종은 세탁으로 바뀌었지만, 간판의 이름처럼 '동일'한 자리에서 5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장은 7남매 중 다섯이 함께 면내에 거주할 만큼 '고산 사람' 그 자체다. 한자리를 지키는 동안 이곳의 변화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왔다.


“그때는 윗동네에 시장이 있었고, 이 밑에는 시장이 없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긴 다 없어지고, 농협 앞 주변이 시장이 돼버렸어.”

그의 말처럼 상권이 이동하면서도, 동일세탁소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때 읍내에만 7~8곳이나 있던 양복점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세탁, 드라이, 그리고 수선까지 50년 경력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가을철이면 코트나 양복 드라이를 맡기려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룩이나 오염을 제거해달라는 의뢰가 들어 오기도 하는데, 오랜 경험에서 나온 그의 철칙은 분명하다. 눈으로 쓱 훑어봤을 때 옷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으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한다. “괜히 만지작거리다가 뽕꾸 나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건 그냥 못한다 딱 말해줘야지.”

오래 자리를 지킨 만큼 기억에 남는 특별한 단골손님도 있다.

“총각 때 내게 양복을 맞춰던 손님이 결혼하더니 아들을 낳았더라고. 그 아들이 학교 들어가면서 교복을 맡기러 오고, 또 장성해서 결혼 전 양복을 맞추러 다시 왔지. 3대에 걸친 인연이 생긴 셈이야.”

최근에는 허리 수술로 잠시 쉬고 있는 아내를 대신해, 이 사장이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반세기 세월이 묻어 있는 그의 손끝은 오늘도 고산 사람들의 옷과 추억을 곱게 다림질하고 있다. 

## 7시부터 문 여는 20년 경력 미용사

고산 읍내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불을 켜놓은 작은 미용실이 눈에 들어온다. 재작년 10월 문을 연 '꽃 미용실'은 벌써 2년째, 고산 사람들의 단골 사랑방이 되었다.

이곳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전주에 살던 때부터 소연자 사장은 새벽 4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곤 했다.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데, 버스 시간 때문에 빨리 오시는 손님들 맞이하려고 7시부터 문 열어요.”

덕분에 출근길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거나 아침 파마를 맡기는 손님들이 늘었다.

파마, 커트, 염색까지 다정하고 정성스럽게 챙기며, 머리를 말리는 동안 나누는 수다에도 웃음이 묻어난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그나마 한가할 때 누릴 수 있는 여유다. 꽃미용실은 대부분의 영업시간 내내 손님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오면 바빠 움직이는 손과 함께 머릿속도 쉴 새 없이 굴러간다.

“사람 머리카락마다 파마약이 잘 듣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손님 머리 상태 봐서 30분짜리 약을 써두고, 중화 시간 동안에도 다음 손님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내 생각하면서 움직이죠.”

손님 대부분은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지낸 이웃들이다. 서로 안부를 묻고, 고산의 소식을 전하며 하루를 함께 연다. 오후에는 주로 남성 손님들이 조용히 찾아와 머리를 다듬고 간다.

“고산은 참 정감 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다들 인사하거든요.” 그는 그렇게 사람 냄새 나는 마을을 좋아한다.

큰 욕심 없이, 오늘처럼만 꾸준히 손님과 옷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더 바쁘면 힘들죠. 지금이 딱 좋아요.” 따뜻한 손끝에서 하루의 시작을 여는 꽃 미용실은 오늘도 고산의 정겨운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3대에 걸친 고객을 보유했 만큼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인 이영권 사장

고산로  
100

세심정 막회 김정곤 사장

## 문 연 지 1년 된 회덮밥 맛집

거리를 걷다 보면 수조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시선을 잡는다. 바로 김정곤(65) 사장이 운영하는 '세심정 막회 횡집'이다. 가게 간판부터 주방 타일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싱크대 제작과 인테리어 일을 20년 넘게 해온 그가 고향에서 식당 문을 연 지 이제 1년이 넘어 간다.

식당 준비에 꼬박 40일이 걸렸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세팅까지 거의 혼자 했어요. 타일 붙이고 구조 짜는 것까지 제 손으로 했죠. 겨울이라 추웠는데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몇 마리씩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세심정 막회 횡집의 점심 인기 메뉴는 단연 '회덮밥'이다. 당근·오이·상추·배추 등 아삭한 채소 위에 손질한 회를 가지런히 얹고, 직접 만든 새콤한 고추장 양념을 더한다. 그 위에 참기름을 한 방울 두르고 고소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된다.

회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혼자 하다 보니 손질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일이 끝이 없다. 그래도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점심에는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문을 연다.

김정곤 사장은 본래 손재주 좋은 기술자였다. 싱크대를 제작하고 설치하며 전국을 다녔던 그는 "여름철 장사가 뜸할 때면 가게를 잠시 닫고 현장 일을 나간다. 지금도 가게를 쉬는 일요일에는 옛날에 일했던 동료들과 같이 일하러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당 운영과 함께 그는 고산상인회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산 상가 절반 이상이 외지 상인이라 지역 분위기가 한산하지만, 그는 "고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영업이 끝나면 그는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고 다음 날 쓸 재료를 준비한다. 손수 꾸민 작은 횡집은 오늘도 주인의 손끝에서 깔끔하게 다듬어진다. 그리고 그 정직한 손맛을 믿고 찾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손님에게 낼 회를 손질 중인 김정곤 사장

고산로  
100

붕어나라 고진수·박미애 사장 부부

## 직접 잡은 자연산 소문 나 전국서 주문

'붕어나라' 간판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정성껏 손질된 붕어, 가물치, 다슬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액기스를 만드는 다양한 설비가 눈에 띈다. 27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고진수·박미애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남편은 고산 토박이, 아내는 전주 출신으로, 어업인이던 고진수 사장이 어업과 관련한 2차 산업을 고민하다가 자연스레 이 일을 시작했다.

"거의 다 자연산이에요. 붕어도, 가물치도, 다슬기도요."

부부는 지금도 주에 두세 번씩 고산천으로 나간다. 만경강 상류의 1급수 물에서 잡는 생물이라 맛이 다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슬기를 잡고, 겨울이 오면 붕어와 메기, 쏘가리 같은 민물고기를 손질하느라 하루가 바쁘다.

이 집의 인기 품목은 직접 만든 '다슬기 액기스'다. "간에 좋다고들 해요. 다슬기 알맹이만 녹여 가루로 만들거든요." 한 술에 20kg짜리 다슬기에서 약 150 봉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면 완성된다. 품질 좋은 재료로 깔끔하게 만들어 찾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지금의 횡집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늘어나는 손님에 따라 각종 설비와 창고가 많아져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겼다. 평일에도 물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이 많고, 대전·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 박미애 사장은 "특히 익산, 군산 쪽의 단골들이 우리 집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웃었다.

여름이면 문을 좀 더 늦게 닫고 생다슬기를 팔고, 겨울이면 민물고기를 깨끗이 손질해 판매한다. 사장 부부는 계절마다 다른 물길 위에서, 변함 없는 정직함으로 고산의 맛을 지켜간다.



고산천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 등을 파는 박미애, 고진수 부부



참맛나기름집 조규덕·박정순 부부

## 찌꺼기 없는 깔끔한 기름 명성 자자

아침 6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며 하루가 시작된다. 손님들은 기름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사가고, 부부는 그 믿음을 18년 동안 지켜왔다. 2007년 문을 연 참맛나기름집에는 매일 단골과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

Q. 언제부터 이곳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A. 2007년에 문을 열었어요 벌써 18년째네요. 처음에는 힘든 날도 많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단골이 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데,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요.

Q. 어떤 제품들을 직접 만드시는지.

A. 참기름과 들기름이 제일 많이 나가고, 생들기름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엿기름, 메주가루, 미숫가루까지 직접 만들어 판매하죠.

Q. 생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A. 기름을 빨리 짜면 맛이 없어져요. 저온에서 천천히 볶아야 깨가 타지 않아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18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래야 맛이 정직하게 나오거든요. 깨를 씻고 볶고 짜는 과정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해요. 이 과정은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게 철칙이에요.

Q. 18년 동안 가게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A.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커요.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늘어버리잖아요. '뭣이든 해야 한다, 놀면 뭐 하겠냐'는 게 저희 생각이예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나누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 삶의 활력이고, 기름집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Q. 앞으로 바라는 점은.

A. 지금처럼 건강하게, 기름도 정직하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남는 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가게 안에서 웃고 있는 박정순, 조규덕 사장 부부



청춘방앗간 김태수·이방글 씨 작별인사

## 청춘의 터전으로 계속 이어지길

고산 청춘방앗간을 지켜온 두 공간지기 김태수·이방글 씨가 2025년을 끝으로 자리를 떠난다. 두 사람에게 청춘방앗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잇고 위로를 주는 터전이었다. 두 공간지기의 마지막 인사를 1문 1답으로 담았다.

공간지기  
김태수

Q. 청춘방앗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

A. 외롭게 지내던 귀농 초기, 처음으로 인연과 손님을 만난 공간이었죠.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지역과 사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Q. 공간지기로 지낸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A. 제가 살갑지 않은 편인데도, 방문하는 분들이 더 먼저 웃으며 맞아주시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적응도 쉬웠고, 지역 정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Q. 앞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근로계약이 끝나 고산을 떠나지만, 여기에서 만난 인연은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오진 못해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공간지기  
이방글

Q.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가장 크게 배운점은.

A.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공간은 건물이 아니라 삶과 이야기가 쌓이는 곳을 깨달았죠.

Q. 방문객들과의 기억 중 특별히 남는 순간은.

A. 서툰 저를 편안히 받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공간이 활력넘치고 생기가 가득했어요. 그 에너지는 오래 기억될 거예요.

Q. 청춘방앗간의 다음 시간을 바라본다면.

A.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만 이 공간의 시간은 계속될 거예요. 다음 공간 지기와 함께 더 단단한 청춘의 터전이 되길 응원해요.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



청춘방앗간이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

## 예비 맥가이버들의 교육 현장 내 집은 내가 고친다!

2025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수리수리 집수리 부캐학교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관리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2025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수리수리 집수리 부캐학교(이하 집수리 교육)'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11월 28일 오전 완주미래행복센터 교육장에는 굉음과 함께 나무 부스러기가 흩날렸다. 교육생들은 첫날 용접부터 시작해 5회차에 이르자 원형 톱, 직쏘, 임팩트 드릴 등 낯선 공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가장 실용적인 기술로 임팩트 드릴 사용법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교육생 이은실 씨는 “주택에 사는 게 꿈인데, 농촌 주택에 살려면 ‘맥가이버’ 기술은 필수”라며 “이런 교육이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교육생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웃었다.

교육생들은 그간 배운 공구와 기술을 활용해 땅 및 기초 작업과 골조(뼈대) 세우기, 합판을 덧대는 구조 완성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은 조를 나누어 창문 널 곳의 벽면 치수를 재고, 뚫어서 창호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열정적으로 배움을 흡수하는 교육생들, 그리고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이들을 이끌어가는 강사진 및 보조 인력 사이의 시너지가 두드러졌다. 주 강사인 전환기술협동조합 박용범 이사는 “올해 교육 과정으로 경량 목구조 방식을 채택했고, 특히 빗물 유입을 막는 ‘프레싱’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건물 자체의 수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수료생이었던 이재필(58) 씨는 강사진과 올해 교육생 사이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다치기 쉬운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알려주거나 강사의 설명이 어려우면 쉽게 풀어서 전달한다”고 소개한 그는 작년 교육을 수료하고 올해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작년에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열의에 찬 이번 교육생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얻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집수리 교육 수료생들은 앞으로 완주 곳곳에서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맥가이버’로 활약할 예정이다. **공**



# 소꿈사X완사넷, 어른과 아이, 마을을 있다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11월 29일(토) 다양한 주민활동을 모아서 성과를 확인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아동과 청소년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과 주민소모임, 통합돌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가 진행을 맡았다.

글=김종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국장



1부는 주민소모임이 부스를 차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다시 만날 아름다운세상(다아세) 소모임은 환경퀴즈 풀이 △골목 축구 소모임은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이들과 함께 고무줄놀이 △목요스텝박스 소모임은 음악에 맞춰 스텝박스를 이용한 운동 △바실마실(바느질) 소모임은 두건 만들기 △자연드림뜨개방 소모임은 목도리와 발토시 뜨개질을 △황소탁구 소모임은 계란판 탁구공 놀이 △레인보우워커스 소모임은 노르딕워킹 체험을 △소양캘리그래피 소모임은 예쁜 손글씨로 엽서 쓰기를 △클린용연 소모임은 옷놀이를 진행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

뜨개질, 두건만들기 등 소모임들 다양한 체험 인기 아이들 난타, 밴드 공연엔 환호-박수갈채

까지 100명이 넘는 소양 주민이 참석해 축제장 곳곳을 누볐다. 소꿈사와 소장금은 먹거리 부스로 참여했고, 그 옆에서 소양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재목 회장은 손수 봉어빵을 구웠다. 특히 소꿈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이어진 2부에서는 소꿈사와 완사넷의 2025년 활동성과를 보고하는 시간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소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중학생들의 댄스 공연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주민소모임 참여 어르신들의 태권도 시범과 요가 공연이, 마지막으로 밴드 2개 팀이 공연을 진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축제의 가장 큰 의미는 첫 번째로 소꿈사와 완사넷의 활동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소양의 어린이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소양의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소양면 한 어르신은 “소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네”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고 하늘도 도와서 날씨가 너무 좋았고 참여한 모든 주민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했다. 언제나 소양에서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르신들의 흐뭇한 미소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레인보우워커스 소모임의 노르딕워킹을 체험하는 어르신

## 꿈의 극단 '완주'는 상상과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는 작은 아티스트들의 놀이터!

아동·청소년 단원들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극본의 빈칸을 채우고,  
원작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며  
연극적 상상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합니다.

나를 믿고  
내 마음을, 통료를, 이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먼 곳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 곁의 이야기를  
무대의 언어로 실험하고 공유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비로소 '나'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있는  
연극 한 편을 만들어 갑니다.



202

특별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무대 위 펼쳐진 작은 별들의 일상 이야기

'꿈의 극단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전국 12개 신규 거점기관 중 하나로 5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총 31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의 결실은 11월 22일 정기공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글=꿈의 극단 코디네이터 이정란

### 우리들의 사사로운 일상이 연극으로

지난 11월 22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말한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사사로운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엮은 두 편의 공동 창작극이 선보였습니다.

공동 창작극은 아이들이 직접 쓴 일상 이야기를 토대로 극작가와 함께 대본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공연 전체에 아이들의 목소리와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예술 경험을 통해 연극 놀이, 즉흥극, 장면 만들기, 스토리텔링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연극의 기본 요소를 익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무대 언어로 표현하는 즐거움도 배우게 되었죠.

이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5명의 단원들은 첫번째 정기공연을 맞아 무대 위에서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움직임과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학년반의 <학교 가는 길>이라는 작품은 가족, 학교, 우정 속에서 마주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신나는 등굣길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무대 위에 길게 놓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더해져 아이들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고학년반의 <집에 가는 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갈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현실을 벗어나 이세계에 도착한 아이들이 '깃발'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이어지며,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각자의 '꿈'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7개월간 준비한 단원들의 하이라이트

이날 가득 채워진 객석에서 보내는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장난스러운 끼와 개성 가득한 아이들 모두 다채롭게 빛을 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평소에는 장난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사를 놓칠 때 서로 조용히 알려주며 챙겨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극 속에는 아이들의 말투와 생각이 그대로 대사에 녹아져 있어, 부모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극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연극의 즐거움을 알려주려 노력한 예술 강사 및 창작진 또한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 위에서 씩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낸 단원들이 기특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저학년 <학교 가는 길>



고학년 <집에 가는 길>



Instagram  
꿈의 극단  
바로가기

### 꿈의 무용단 in '완주' X 꿈의 극단 '완주' 기록전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

11월 22일(토)부터 12월 2일(화)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아이들의 1년간의 여정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두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로, 연습 장면과 창작 과정의 기록물, 그리고 무대 소품 등으로 아이들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 꿈의 무용단 in 완주

##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몸짓으로 피어나는 꿈,  
함께 만드는 우리 이야기

단원들은 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자신의 세계를 춤으로 표현하고, 함께 만든 움직임들이 이어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춤을 만드는 여정 속에서 단원들은 예술의 주체로서 공동 창작과 공연을 통해 '함께와' '같이'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움직임을 배우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 나갑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서른두 명의 콩쥐, 무대에서 꽃 피우다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완주문화재단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꿈의 무용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차 수업을 통해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글=꿈의 무용단 코디네이터 최가람

### 우리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지난 11월 29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서른두 명의 아이들이 모두 '콩쥐'가 되어, 완주군 앵곡마을에 전해지는 옛이야기인 <콩쥐팥쥐>를 아이들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무용극 <콩쥐야, 콩쥐야! 뭐하니?>를 선보였습니다. 전석 매진 속에 막을 올린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 수업은 아이들이 자유로운 신체 탐색과 창의적인 움직임 경험을 통해 몸의 언어를 익히고 감각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32명의 단원들은 무대 위에서 순수한 몸짓과 따뜻한 마음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앵곡마을의 아침에서 시작해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꿈을 향한 여정을 지나,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로 이어지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 무대 속 네 개의 장면

#### 1장 앵곡마을 아이들

햇살 가득한 아침,  
하나둘 모여드는  
아이들의 등갓길 풍경!



#### 2장 우리들의 세상을 엿보다

네모난 공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친구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을 넓혀가는 과정!



#### 3장 여정을 위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마주  
하는 역경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내  
며 성장하는 이야기!



### 4장 앵곡마을 별들의 축제

모두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미래를 축하하는 순간!



### 아이들의 일상이 춤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평범한 하루가 춤이 되어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 등갓길에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가위바위보 계단 오르기 게임을 하며 깔깔 웃던 모습까지 아이들의 작은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원들은 고무줄, 막대기, 천 같은 소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감정과 꿈을 표현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움직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평소의 장난기 대신 놀라운 집중력과 표현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하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거나, 실수한 친구를 살며시 다독여 흐름을 이어주는 모습은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해가는 진정한 '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단원이 아닌, 완성된 무용수의 면모를 보여주며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 함께 만든 무대, 서로에게 남긴 이야기

**예술감독** 단원들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멋진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아이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일상의 경험이 움직임 창작과 공연으로 확장되는 창작무용교육의 전 과정을 담아낸 무대였습니다. 단원들은 움직임이 곧 이야기와 감정이 되고, 공연은 공동 창작이라는 점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준 단원들이 자랑스럽고, 이번 경험이 아이들의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단원들** 춤과 다양한 창의 활동 덕분에 매 순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무대에 서는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멋진 의상을 입고 친구들과 공연을 만들어 간 과정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무대에 설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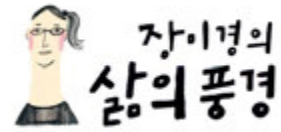
꿈의 극단 '완주' X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함께할  
작은 아티스트를 찾습니다!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함께 새로운 연극과 무용을 만들어갈 완주지역의 아동·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야기가 꽃 필까요?

문의: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Instagram  
꿈의 무용단  
바로가기





봉동읍 둔산리 왕안라 이야기

## 파란만장 유쾌한 왕언니

일흔을 넘긴 왕안라 씨(1953년생)에게 최근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 완주 삼례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집에서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던 왕 씨는 친구의 권유로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국수가락'과 '새참수레'에서 일하게 됐다. 작년부터 맡은 일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이른 아침을 책임지는 일이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 수행하게 되면서,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던 왕안라 씨가 자연스럽게 이 일에 투입된 것이다. 지금도 그는 간단한 샐러드부터 샌드위치, 김밥까지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 어김없이 출근한다. 이곳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은 '왕언니'. 음식 재료 손질부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왕언니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완전 왕언니지. 다들 50~60대 정도이고, 자식뻘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잠깐 떨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내가 일부러 주책을 떨면서 기쁨조를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엄마들에게 고맙다고 해요. 솔직히 나이 차이가 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를 편하게 대해주니까 고맙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청하고 호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 노량진 설렁탕집 첫째 딸, 늘 사람이 그리웠던 시절

오전, 왕안라씨의 거실에는 빛이 한가득이다. 그의 큰딸이 지난밤 인터뷰한다는 엄마이야기를 듣고 양과자라도 대접하라며 용돈을 조금 보낸 모양이다. 집 앞 제과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사 온 따끈한 빵과 보이차가 다과상 위에 놓여있다. 집 벽면에는 안라 씨가 직접 수놓은 수예작품들과 톱툰이 모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만들고 모은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전시된 작은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 그는 어디서 배운 적은 없지만 손재주가 좋아 무엇이든 잘 만드는 사람이다. 주체적으로 살아왔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했다. 사람을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그의 성향은 어디에서 비롯



왕안라 씨의 취향이 가득 담긴 거실, 삼례읍 라인댄스팀 '프리티우먼'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은 이가 안라 씨다. 여행하며 모은 작은 조각품들

된 것일까.

“우리 부모님은 이북사람이에요. 1·4후퇴로 고향 갈 길이 막히면서 노량진 본동에 자리 잡고 빵집을 하다가 ‘덕하옥’이라는 설렁탕집을 운영했지.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같이 장사를 하셨는데 모두 다 생활력이 강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갔다 오면 교복 벗고 가게 일을 도왔어요. 우리 친가가 전부 이북사람이다 보니 친인척들이 없어서 외롭게 컸어요. 12살 밑의 남동생 하나 있지. 나중에 결혼하면 자식을 한 12명을 낳고 싶었는데 딸, 아들 둘만 낳았지. 외롭게 커서 그랬나 사람이 늘 그립더라고. 할머니는 생활력이 강했지만 어찌나 무서운가 우리 엄마 시집살이 꽤나 시켰어요. 우리 엄마를 맨날 ‘도둑년’이라고 부르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이름이 ‘도둑년’인 줄 알고 학교 알림장에 엄마 이름을 그렇게 썼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가 학교에 불러 왔던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화를 내더라고.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 뒤로는 할머니가 그 소리를 안 하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위했어요. 점심 장사 끝나면 엄마에게 늘 자유시간을 줬고 아버지가 주로 부엌에서 일을 했지. 내가 음식 잘하는 건 아버지 닮은 거 같아. 어머니는 집안 정리하는 것과 뜨개질을 잘했고 할머니는 수를 기가 막히게 잘 냈거든. 어렸을 때 영킨 실타래를 주면 내가 그걸 기어코 끝까지 풀었대요.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저 기집에 편히 살긴 글렀다 그랬대요. 어디 가서 사주보면 손에 천복이 들었다는데 그게 큰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손으로 고생하며 먹고 사는 팔자였던 거지.”

안라 씨의 아버지는 “무엇이든 해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면 “너도 배워봐라” 하고, 기타도 배워보라며 직접 학원 등록까지 해주었다. 대신 스스로 서서 살아가기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라는 조언을 늘 아끼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해 중어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문화원에서 1년 반의 직장생활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한 군인과 편지를 주고받던 인연이 이어져 그 군인의 부대 소대장이었던 김판기 씨와 결국 부부가 된 사연은, 그 어떤 영화 못지않게 흥미진진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 따라 철원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10년 동안 서른 번 넘게 이사를 다녔다. 남편이 군부대를 나오면서 83년도에 전주에 자리를 잡았다. 안라 씨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녔고 나는 학원을 차렸지. 영어는 선생님을 고용하고 중국어는 내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중국어는 좀 빨랐던 것 같아. 그 뒤로 덕진우체국 옆에 수예점을 차렸어요. 홈패션도 하고 장사도 잘되고 그 시절에 주식도 시작했어요. 수익도 많이 보고 잃기도 하고. 나는 겁이 없었어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았지. 무식하면 용감하더라는 말이 나한테 딱 맞는 거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긴 해요. 그 뒤로 남편이랑 부동산 하면서 서신동 택지개발로 많이 벌 때도 있었지. 이런저런 투자가 실패하기도 하고. 하여튼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어. 20년 전에 삼례 와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거지. 아들, 딸한테 각자도생해서 5년 뒤에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식당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살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닳았을 때 도망치듯 삼례로 왔고 이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거쳤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생겼다.

왕안라 씨는 새벽에 출근해 아침 무렵 일을 마친 뒤, 오후가 되면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로 향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3년 전부터 라인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프리티우먼’ 라인댄스팀에서 활동하며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며칠 뒤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춤추는 동안 어떤 느낌이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스텝만 신경 쓰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잡념이 사라지는 것. 내년에는 기타도 배우고 싶고 전공 살려 중국어 수업도 해보고 싶어요. 내 나이쯤 되면 혼자 노는 법을 익혀야 해요. 그리고 1순위가 나야. 나이가 이 정도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편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회한은 남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면 그걸로 끝, 지나간 것은 그저 지나갔을 뿐”이라는 말처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여 속이 상할 때면, 파란만장한 삶을 헤쳐온 왕안라의 이 명언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 완주 여기로 모이자!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계절,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 나만의 겨울 향기 만들기 ▶

내 마음이 끌리는 향을 취향대로 고르고 조합해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향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13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15,000원

#### ▶ 겨울꽃 센터피스 만들기 ▶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소재들로 채우는 윈터 무드센터피스 만들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19일 (금) 오후 7시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15,000원

#### ▶ 저속노화 밥상 ▶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저속 노화밥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채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17일, 24일, 31일 (매주 수) 오후 6시  
**모집인원:** 4명  
**참가비:** 회당 5,000원

#### ▶ 목요일영화데이 ▶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12월 상영작은 '더 폴: 디렉터스 컷',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11일, 18일 (매주 목) 오후 2시

#### ▶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12월 11일, 18일 (매주 목)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12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12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2월 20일 (토) 오후 2시	더 크리스마스	애니	전체 관람가
12월 27일 (토) 오후 2시	장손	드라마	12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2월 30일 (화) 오후 7시	스트레이트 스토리	드라마	전체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2025 제주 북케이션 워크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부스 참여



지역 출판사와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도서 문화 축제, 2025 제주 북케이션 워크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책과 휴식, 로컬 크리에이티브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감각의 북페어로, 전국 각지의 독립출판사-미디어 공동체가 참여해 교류의 장을 만든다.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은 이번 북케이션 워크에 부스를 열고, 완주 지역의 일상과 관계를 기록해온 <완두콩 소식지>, 어르신들의 손글씨 아카이브 프로젝트 <할미그라피>, 로컬 인터뷰 북 <완주사람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완두콩협동조합은 "작은 지역의 기록이 제주에서 새로운 독자와 만나고, 서로의 로컬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14일(토)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부스 관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북케이션 워크 공식 SNS(@santawhatsuda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 완주군마을공동체 희망나눔 한마당

2025년 완주 지역 마을공동체가 한데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나누고 소통하는 '2025 완주군마을공동체 희망나눔 한마당'이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동체가 만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동행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완주경제센터 강당에서 열리며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와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참여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꾸러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 2025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 트워크 송년의 밤

2025 완주사회적경제 송년의 밤이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완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로 협동과 연대를 되새기며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삼례 새참수레에서 진행되며 저녁식사와 함께 2025 조합원 뉴스 공유, 소셜굿즈 어워드 시상식, 공동체 교류 프로그램 등이 어진다. 특히 참여자들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며 신청은 온라인 <https://bit.ly/완사넷송년의밤참석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드로 하면 된다.

## '노랑이' 가족을 기다립니다

고산미소시장 길목에서 태어난 길냥이 세 마리 중 노랑이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노랑이는 애교가 넘치고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성격으로, 흔히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고양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나이는 약 6~7개월로 추정되는 수컷이다. 현재 노랑이는 삼정이사 공유공간, 편집숍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는 '널리널리홍홍(고산면 남봉로 134, 310호)에서 임시보호 중이다. 입양 문의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널리널리홍홍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고양이 노랑이에게 귀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MERRY  
CHRISTMAS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유리 술레비츠 글.그림 | 시공주니어 | 32쪽 | 1994 | 1만5백원

### 새벽



유리 술레비츠의 그림책 「새벽」은 이야기를 크게 말하지 않는 책입니다. 대신 아주 작은 빛의 변화와 미세한 공기의 움직임을 통해,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 시간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새벽이라는 현상 자체를 펼쳐놓습니다. 처음엔 푸르고 두터운 어둠뿐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순간.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기척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늘의 농도가 바뀌고, 멀리서 희미한 선이 생기고, 풍경은 아주 느린 속도로 제 그림자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단지 빛이 바뀌어 갈 뿐인데, 책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 빛에 맞춰 서서히 깨어나는 듯합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새벽길에서 종종 느꼈던 그 '경계의 순간'이 떠오릅니다. 퇴근하며 지나던 새벽길, 하루의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시간대. 가장 늦은 밤과 가장 이른 아침이 손끝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술레비츠의 그림 속 새벽은 바로 그 모호함, 그 흔들림, 빛과 어둠이 서로를 밀어내거나 삼키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마지막 불빛 같은 어둠과 처음 스며드는 빛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하루의 끝과 시작이 사실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일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일이 시작되려는 기척이 있고,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머물러 있는 자리. 저는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덕에 마음이 다시 정리되는 시간. 그것이 새벽이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술레비츠는 그 특별한 순간을 그림으로, 감각으로 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지만 읽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새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루의 첫 숨을 느껴보고 싶을 때,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필요할 때, 혹은 오래된 습관처럼 찾아오는 새벽의 기분을 다시 만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 베르:봄 책방은 이번호를 끝으로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연재를 마칩니다.

### 베르:봄 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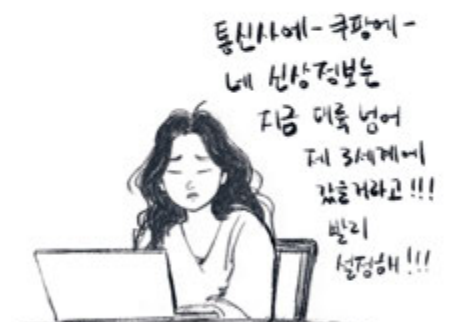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설레

#78 나 아닌 나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지난 11월 22일 열린 자립실험축제 조직 발족식 참여단체 회원들


## 화덕 앞에 모인 사회적경제

### 자립실험축제 조직 발족식

11월 22일 오후 4시,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자립실험축제 조직 발족식이 열리며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립'과 '연대'의 새 흐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더나은문화공동체, 전환기술협동조합,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네 개 단체가 참여해 축제 추진을 위한 공동 조직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 발족식은 그동안 행정기관과 제도 지원에 의존해온 구조에서 벗어나, '나는 난로다'를 전신으로 이어온 사회적경제 공동체 간 연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하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했다. 선언문에서는 행정 예산이 아닌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축제를 준비하며, 생태적 삶과 전환기술, 환경적 예술과 생태적 놀이, 열린 실험과 배움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장에서는 더나은문화공동체 윤혜진 대표가 발족식의 취지와 향후 자립실험축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선언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축제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 활동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며, 축제 구성 방식과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완주미디어센터 앞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전환기술협동조합이 준비한 화덕에 완주한우협동조합이 협찬한 소고기를 구워 나누어 먹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불을 둘러싼 담소 속에서 참여 단체들은 앞으로의 협력 방식과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머칠의 축제'를 넘어 일상 속 자립적 문화와 생태적 전환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약속을 나눴다.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겹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별빛 아래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노래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4) 돈 맥클린의 [빈센트 Vincent]

노래의 첫 줄 가사 “별이 빛나는 밤에”는 마치 큰 화폭 하나를 펼치는 듯합니다. 노래의 화자는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이입니다. “이제 나는 이해해”라는 후렴의 고백은 단정이 아니라 도달하려는 다짐입니다. 이해는 완결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이 리듬과 선율, 이미지와 비유를 따라 차분히 진행됩니다.

화자는 고통을 대신 증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제정신을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 했지만 그들이 듣지 못했음을” 기억해 내려줍니다. 이 기억의 어조가 노래의 윤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유하지 않고, 그 고통이 건네려 했던 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모합니다.

가사는 명사보다 동사가 적고 설명보다 묘사가 많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을 팔레트에 그려요” “나무를 스케치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꽃” “소용돌이치는 구름” 같은 구절들은 반 고흐의 붓질을 문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감정은 서술되지 않고 색과 질감으로 번역됩니다. 우울은 ‘파란색과 회색’으로, 걱정은 ‘타오르고’ ‘소용돌이치고’ 연민은 ‘사랑의 손길’로 그려집니다.

밤하늘의 소용돌이는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을, “황갈색 곡식”은 아틀과 오베르의 밀밭을, “고통으로 지친 얼굴”은 농부와 우편배달부 그리고 자화상들에 새겨진 주름을 떠올립니다. 특히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의 반복은 그림 앞에서

멈추어 서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태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사실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화자의 절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노랫말 중 가장 아픈 대목은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실했어요”일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역설. 이 가사에는 반 고흐의 전기적 맥락을 떠나 예술이 이 세계와 갖는 일반적인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불가능해도 그려야만 하는 어떤 사랑. “이 세계는 그대처럼 아름다운 이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체념이 이어지지만 노래는 이 체념조차 조용히 수정합니다. 사랑의 효력은 외부의 호응이 아니라 내부의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곡 전체의 낮은 볼륨과 꾸밈없는 멜로디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의 잔잔한 아르페지오와 절제된 현이 노래의 바닥에 흐릅니다. 리듬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완만한 파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파동은 반 고흐의 나선형 붓질과 대구를 이루지만 표현 방식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소용돌이의 긴장을 밀어 올린다면, 노래는 그 소용돌이를 부드럽게 눌러 앉힙니다. 선율은 과장 없이 좁은 음역을 오르내리고 후렴의 하행 진행은 이해의 감정이 고조가 아니라 안착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편성의 미덕은 여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강한 박의 강조를 피함으로써 듣는 이가 가사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빈자리를 남깁니다. 그림에서 굵은 붓질 사이의 칠해지지 않은 캔버스가 숨구멍이 되듯, [빈센트] 노래는 침묵과 여백으로 숨을 쉬게 해줍니다.

노래는 죽음을 말하지만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노래는 걱정을 증폭시키기보다 감정을 이해의 호흡으로 정리합니다. 분노와 비통을 외치지 않고 이미지와 리듬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음의 동요를 질서로 바꿉니다.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가사가 선택한 어휘, 선율의 완만함, 편성의 절제가 함께 정돈된 애도를 완성합니다.

이 노래는 반 고흐의 삶을 전기적으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개의 결정적 이미지들—밤하늘, 해바라기, 밀밭, 얼굴의 주름—을 집약하여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묶어줍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자세한 정보가 아니라 잘 조직된 이미지입니다. 이 노래는 기억이 헤매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돈 맥클린을 스타덤에 오르게 해준 명곡입니다. 반 고흐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는 추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라면 해석보다는 머뭇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 소절을 듣고 그에 대응하는 그림을 떠올려도 좋고, 같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후렴에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가 반복될 때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이 가능합니다. 나는 무엇을 끝내 듣지 못했는가? 내 곁의 누군가가 건네던 신호를 어떤 이유로 간과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노래는 과거의 한 화가를 추모하는 곡에서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는 노래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볼 수 있어야 진정한 새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케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완주 농악단, 일본 유네스코 축제 ‘묘켄사이’에서 화려한 연주

완주농악 일본 공연단(이희수 단장, 13명)이 지난 11월 22일~23일 일본 구마모토현 야츠시로 묘켄사이 축제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묘켄사이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일본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역사 깊은 행사이다. 이 축제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완주 농악단은 축제의 전야제와

피날레 무대에 올라 완주 농악과 사물놀이 연주를 선보였다. 16만여 명의 현지 관람객은 공연 내내 “스고 이!(대단하다)” 등 뜨거운 찬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완주군에 체류하며 한국 전통음악과 농악을 배웠던 구보타 간지 씨와의 협연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열정과 기량이 빛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 로봇이 인간의 애정을 갈구한다면?

김영혜의 **영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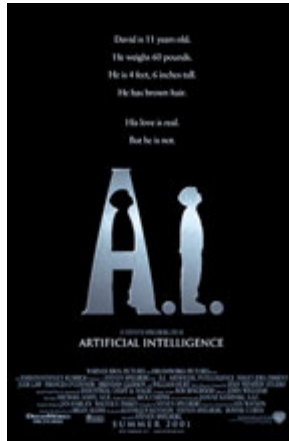
(11) A.I.

온 세상이 AI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AI가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거다. 아니,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AI를 모르고서는 이제 사람 취급을 못받을 것같은 분위기이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문외한이 이해하기로는 컴퓨터가 ‘사람같은’ 지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람보다 월등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취합하고 기억하고 분석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 속성이니 뭐, 지능을 가질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다면? 인간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애정을 갈망한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외모를 본뜬 로봇의 얼굴이 기괴하고 조잡하지만, 조만간 사람과 구분이 어려운 외모를 가진 로봇이 단순히 정보를 척척 내놓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서 애정을 갈구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영화 <A.I.>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간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주연, 미국, 2001

단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영화이다.

데이빗은 코마상태에 빠진 어린 아들 때문에 끝모를 슬픔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남편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만든 아이 로봇이다. 이 특수제작된 인공지능 로봇은 아들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처럼 굴지만 인간이 ‘사용법’에 적힌대로 입력시키기 전까지는 아직 자신의 용도, 즉 엄마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특수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만약 고객이 이 로봇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로봇은 재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된다.

아내가 망설이다가 사용지침을 입력하자 로봇은 다정하게 “엄마!”라고 속삭인다. 이렇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다.

스필버그는 술한 걸작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상상력과 정서를 다룬 영화에 특히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는 감독이다. 볼 때마다 즐거운 <쥬라기 공원>, <ET>를 생각해보라! <A.I.>도 그 계열 중 하나이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서 아이(인간)가 가지는 엄마(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갈구가 어떤 것인가를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진짜 아들이 회복하자 버려진 데이빗은 몇 천년 후(그렇다. 이 아이의 갈구는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 외계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엄마를 만난다. 약속된 단 하루동안 엄마와 단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진 아이가 날이 저물자 엄마 곁에서 함께 영원한 잠에 빠져들 때, 데이빗은 이미 로봇이 아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절절하고 순수한 갈구를 지닌 인간 그 자체이다. 그 갈구가 너무도 절절해서 가슴이 아려온다.

※ 김영혜의 영화산책은 이번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마을소식

## 10일부터 나흘간 제7회 농한기영화제 열린다

완주미디어센터... 주민 후원으로 풍성해져

제7회 농한기영화제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에서 펼쳐진다. 주민공동체 고산권벼농사두레(이하 벼두레)와 완주미디어센터가 해마다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주민들의 후원이 더해졌다.

10일 수요일 저녁 <종이 울리는 순간>을 시작으로 11일 저녁 <3670>, 12일 낮 <일과 날>, 저녁 <비밀의 언덕>, 13일 낮 <여름이 지나가면>, 저녁 <나의 올드 오크> 등 6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모두 주민들이 추천한 작품이다. 낮 상영은 2시, 저녁은 7시다.

10일 상영 전에는 지역 청소년들인 고산고 밴드 ‘회오리감자’의 개막 공연이, 13일 저녁 상영 전에는 뮤지션 김언덕의 폐막 공연이 펼쳐진다. 12일 금요일

저녁 상영 때는 영화음악감독 연리목과의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는 <은교>, <유열의 음악앨범>, <우리들> 등 수많은 영화에 참여한 음악감독이자 뮤지션이다.

13일 토요일 오전에는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한 영화 <돌>과 <아름다운 영혼들은 왜 화가 났을까>의 시사회가 열린다.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시나리오부터 연기, 촬영편집까지 직접 참여해서 만든 영화들이다.

지역 예술가 초청공연 등은 주민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벼두레 기획단 고은설 씨는 “가게 사장님부터 꼬마농부까지 다양한 이름의 후원이 쏟아져 목표액이 순식간에 찼다”며 “이 후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역문



지난해 농한기영화제 모습

화의 씨앗을 만드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벼두레 양나경 회장은 “벼농사를 마무리한 뒤 지역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을 다독이는 사랑방 같은 행사”라며 “이 자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공감하며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두 무료고 선착순 입장이다. 축제기간 동안 놀이방에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별도로 준비한다. 문의 063-262-1895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말 농담

농/촌/별/곡



차 남 호

이건 필시 '사건'이라고 해야겠다. 어제, 그러니까 이 칼럼 마감일 하루 전이었다. 벼농사두레 단체 특방에 '완두콩 농촌별곡 원고 예상'이라는 글 하나가 떡하니 올라온 것이다. 칼럼 필자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누가 뜯금없이 남의 글을 미루어 짐작해 썼다는 말인지. '추수를 끝내고 햅쌀밥잔치를 치른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느새 달력이 12월로 넘어갔다'로 시작된 이 글은 극한의 폭염과 가을장마 탓에 버거웠던 올해 벼농사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악조건 속에서 거뒀던 결실, 햅쌀밥 한 그릇의 가치와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며칠 전 잠깐 내리다 만 '첫눈'을 둘러싸고 단특방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과 지난

해 이맘때의 비상계엄-내란사태를 엮어 그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겨우살이와 내년 농사를 준비하리라는 다짐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 예상 원고 작성자가 벼두레 회원 철종 씨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의문이 풀렸다. 그러면 능히 그럴만하다는 생각과 함께 피식 웃음까지 비어져 나오던 거였다. 안 그래도 철종 씨는 줄곧 이 특방에 사회문제나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해오던 터였다. 더러는 재치와 유머가 담긴 애깃거리도 올려왔더랬다. 그런 마당에 요 며칠 앞뒤 맥락을 짚어봤더니 철종 씨는 나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지어 올린 셈이었다. 그 사정은 대략 이랬다. 지난주에 벼두레 햅쌀밥 잔치가 열렸다. 지난해 처럼 고산읍내 미소시장에서 동네잔치로 벌일 요량이었으나 정미소 문제로 방아가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집안잔치로 조출하게, 그러면서도 정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 그 며칠 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눈발이 흠날리기 시작했다. 감흥을 주체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 야밤에 단특방에 환호성을 질러 댔던 것이다. "여러분~ 첫눈이 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눈발은 거기까지. 이튿날 아

침, 눈송이 하나 보이지 않는 청명한 대지를 따듯한 햇볕이 비추던 것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멀쩡한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특방에 올렸다. 거기에는 장난기 가득한 이런 멘트가 달려 있었다. "와~ 설국이다! 그야말로 은세계가 펼쳐졌네요." 물론 열띤 호응이 꼬리를 물었다. "어디에 설국이? ㅎㅎ 암만 봐도 안 보이는데요?" "맑은 눈에만 보여요" "와~ 하얏다!" 그러니까 철종 씨가 올린 예상 원고는 한동안 펼쳐진 이 소극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벤트였던 셈이다. 짐작컨대 이 예상 원고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생성형 에이아이(AI) 프로그램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발상과 정성이 어디란 말인가. 아마도 이 소동이 없었다면 이번호 칼럼은 철종 씨의 예상 원고와 엇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을 것 같다. 이 칼럼이 <농촌별곡>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별곡이란 게 정곡의 비주류인 '잡기'라는 뜻한다는 점에서 시사칼럼이나 전문가칼럼과 달리 주로 시골살이의 소소한 일상을 다뤄왔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올 한해는 이렇게 저물어간다. 이럴 때 진짜 첫눈이라도 내려주면 오죽 좋을까.

/비봉 염맘마을

### 완주군의회에서는

## “지속적인 동행과 지원 약속”

완주군의회, 장애인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2월 3일 용진읍 한 음식점에서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 전원,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체육·문화 활동 지원 확대 ▲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확대 ▲지역사회 내 차별 해소와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군의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장애인의 권익은 완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 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원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 완주미디어센터 X 벼농사두레X시민후원

# 제7회

# 농한기영화제



2025년 12월 10(수)~13(토)  
완주미디어센터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10일(수) 저녁 7시  
진행자: 고은영(봄바람)

고산고 밴드 <회오리감자> 개막 무대  
• 이은예, 김선율, 서지후, 김지은, 강호원

영화 <종이 올리는 순간>  
• 감독: 김주영, 소예일리 코메일 | 전체관람가 | 80분

11일(목) 저녁 7시  
진행자: 양나경(제니)

영화 <3670>  
• 감독: 박준호 | 15세이상 관람가 | 124분

12일(금) 오후 2시  
진행자: 김기수(까꿍)

영화 <일과 날>  
• 감독: 박민수, 안건형 | 전체관람가 | 83분

12일(금) 저녁 7시  
진행자: 고은설(만만)

영화음악감독 연리목과의 만남  
• 영화 <아침바다갈매기는> <우리집> <우리들>  
<비밀의 언덕> <침묵> <은교> 등 다수 영화 음악 작업  
• <음악당 달다> 음악감독 및 연주자  
• 밴드 <눈뜨고코베인> <타니모션>

영화 <비밀의 언덕>  
• 감독: 이지은 | 전체관람가 | 122분

13일(토) 오후 2시  
진행자: 차남호

영화 <여름이 지나가면>  
• 감독: 장병기 | 15세이상 관람가 | 115분

13일(토) 저녁 7시  
진행자: 오경선(나무)

뮤지션 <김언덕> 폐막 무대  
영화 <나의 올드 오크>  
• 감독: 켈 로치 | 15세이상 관람가 | 113분

시민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유명차완주점, 꼬끼리꼬마농부들, 고산향교육공동체, 사천향 김영진, 울소리카페 정화영, Hair고산, 현대해상전주TC, 김세중, 오택림, 오미덕, 박미정, 박미라, 김영현, 하춘, 차남호, 익명1, 유영빈, 류한승, 엄성복, 장경수오아시스, 이소영, 김민경, 슈퍼킴, 최병주, 김승수, 김현두

